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6 1

(파피가 죽다)

야마나시(山梨) 현민 크리스마스회를 마친 후 특급 아즈사로 나고야(名古屋)를 향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강연이 '지진재해 속에서의 크리스마스'라서였는지요? 지진 재해에 많은 분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야마나시(山梨)에서의 지진재해 강연은 두번째입니다. 생각해보면 지진재해 이후로 1년 9개월 동안 각지를 돌았습니다. 어쩌면 5년이나 10년분의 만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차는 야마나시현(山梨縣)에서 나가노현(長野縣)으로 진입했습니다. 나가노현(長野縣)에도 후쿠시마(福島)에서 피난와서 숨죽여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화제를 바꿔, 함께 피난 생활을 해 온 애견이 오늘 동물병원에서 링게르를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진 재해로부터 1년 9개월의 긴여행은 늙은 개에게도 힘들었는지요.

성도님 중에서도 몸이 편찮아지신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같이 장수합시다'라며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진 재해 2년째를 맞이해 혹독한 겨울을 넘겨야합니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은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8일 고후(甲府)에서 시오지리(塩尻)로 가는 길목에서)

파피가 죽다.

지진재해가 있었던 날 지바(千葉)에 있는 딸 아파트로 함께 피재했던 파피.

파피도 상당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갓난아기도 있어서 파피에게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안해 파피.

그리고 보니 까닭없이 때때로 파피는 떨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가족들이 분주히 지내는 하루 하루가 파피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사태를 파악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야될지를 몰라 떨며 빠듯이 견디어 왔는지요. 과연 동북지역으로 온 애견이라서 잘 참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다면 좀 더 마음을 써주었으면 좋았을것을,,, 이미 파피는 떠났습니다.

월요일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파피가 급변했다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될수있는한 빨리 가려했는데 그날 처럼 전철과 시간이 느리다고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날은 시계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덩그마니 있을 파피를 생각하니 많이 쓸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빨리 와서 안아주기를 바랐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치료대 위에 놓여진 파피는 몰라볼 정도로 변해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쩍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온 것을 알았는지 '공'하는 짧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괜한 눈으로 축늘어져 있었지만 파피가 주인을 알아보고 운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마 잘있으라는 마지막인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파피가 몇번이나 경련을 일으켰지만 아주 잘 견뎠다고 했습니다 심장 맞사지 그리고 호흡기 장착과 링게르를 견뎌며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보기 딱할 정도로 양다리가 굽어있는 변한 모습의 파피를 끌어안고 집에 돌아온 10 분 후에 파피는 떠났습니다. 피재한 개의 스트레스는 보통 개보다 10 배나 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탈모병에 걸리는 개도 있고 작은 소리나 진동에도 민감해져 있답니다.

파피의 작은울음은 사토(佐藤)가의 가족과 마지막으로 신세를 진 나카무라(中村)씨에게 인사를 한 것 이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파피는 주인을 기다려 준 성실한 충견이었고 우리 가족에게 많은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파피를 14 년 7 개월전에 고텐바(御殿場)에서 동북땅인 우리집에 처음 데려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챔피언개 혈통의 강아지로 저는 파피를 위해 개 전문서적을 사서 읽었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이런 파피에게 피재이후로 받아주지 못했던 응석을 받아주고 조금이라도 돌봐준 후였다면,,,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파피는 아주 영리한 꽤 귀여운 슷캐였습니다. 파피가 강아지였을 때, 아이들이 싸움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는 급히 어깨를 부딪치고 있는 두 아이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싸우지 마!'라는 듯이 진지하게 짚어댔습니다. 사실 파피의 그런 행동을 보려고 일부러 장난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며 온 가족이 유쾌하게 웃곤 했습니다. 파피는 싸움을 싫어하는 사토(佐藤)가의 평화의 파수꾼이었습니다. 가끔 파피가 주인을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는 내심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파피야.

그런 파피였기에 소중한 집을 잃고 추억이 담긴 고향에서 쫓겨나와 두 번 다시

낮익은 풍경을 볼 수 없었던 것, 여행로에서 곤란했던 생활, 또한 주인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세월이 흘러 손자가 태어나면서 파피에게는 관심이 차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그런 태도도 아마 더 빨리 파피를 늙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귀도 잘 안 들리게 되었고 시력도 떨어지면서 탈색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요전에 만났을 때는 평소와는 다르게 제 손에 얼굴을 살짝 올려 놓았습니다. 아마 마지막 응석을 부린 것이었는지요.

사토(佐藤)가의 세 자녀의 성장과 독립을 지켜본 파피, 주인부부 둘만이 남았을 때도 변함없이 옆에 있어준 파피였습니다. 그리고보니 마지막으로 파피를 돌봐준 나카무라(中村)씨가 파피는 선교사라고 말했습니다. 파피를 데리고 근처를 산책할 때 파피를 보고 말을 건네는 동네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 덕으로 근처의 많은 분들이 콘서트에 참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파피는 과연 목사집 개로서의 역할을 다 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언제나 기도 끝에 아멘 소리에 맞추어서 '왕'하고 짖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파피의 태우고 남은 뼈를 보며 이렇게 작은 개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작은 머리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이 파피로 인해 모르고 지내던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헤어짐은 언젠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파피를 통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물의 생명이라 해도 마음이 아플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파피가 제 손에서 떠난 날 저희 부부는 14 년전의 비디오를 찾아내 마치 토끼처럼 집과 공원등에서 뽕뽕 뛰어놀던 파피를 보며 밝은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진재해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 작은 동물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이 땅에 있는 소중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깊이 재인식하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피의 귀여웠던 모습을 눈에 그리며 파피를 통해 받은 행복했던 날들을 감사해야겠습니다. 고맙다 파피야 잘가.

(12 월 13 일 도쿠시마(徳島) 시민 크리스마스회로 향하며)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6 2

‘지진재해 중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지진 재해후 두번째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53 장 3 절)** 이렇듯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독생자가 슬픔과 어둠으로 덮혀있는 이 세상에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음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도 아직 교회 건물이 없어 이브예배는 못드리고 크리스마스 콘서트만을 결혼식장을 빌려서 개최했습니다.

슬픔이라면 크리스마스날인 25 일에 저희들이 사는 도시 시청등 세 곳에 ‘피재자는 돌아가라’는 낙서가 써있었다는 뉴스를 듣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가 검은 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것 같습니다. 지진재해에 이어서 일어난 원전사고로 인해 고향을 잃게된 2 만 3000 명이 이 도시로 옮겨 숨죽여 살며 2 년째 고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탓에 어느 레스토랑을 가도 사람들로 붐비며 길도 혼잡하고 비어있는 아파트가 없을 정도라 그와 같은 낙서가 있었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피재자는 의연금을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번동거리거나 파칭코(pachinko)에 간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고향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요사이 마음이 우울해져 아파트나 가설주택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된 분들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집을 잃게 되어서 정말 힘드시겠네요’라고 상냥하게 말을 건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단지 연세드신 분들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말을 건네려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풍경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지?’라며 자신에게 생활무대를 자각시키는 것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언제나 인사를 나누던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활의 무대가 일변한 탓으로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밖으로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재를 당한 한분 한분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고 거기에 또 다시 불안과 분노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으로 덮혀있는 마음에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윽고 새 교회가 완성되어 이런 균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폐쇄된 고향과 이땅에 다리가 되고 또한 일본 각지와 세계를 잇는 날개가 되기를 바라면서 처음으로 이브예배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번에 도쿠시마(徳島) 시민 크리스마스회에 강연하기 위해 시코쿠(四國)를 방문했을 때 가가와(賀川) 도요히코(豊彦)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시작한 생활협동조합이나 노동운동 그리고 베스트 셀러인 '사선을 넘어서'를 비롯한 300 권에 달하는 저서등에 압도되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다이쇼(大正)12 년에 일어난 관동 대지진 때 누구보다 먼저 피해지역에 들어갔으며, 의연금 수집을 위해 동분서주하여 현재 금액으로 5~6000 만엔을 현지에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또 다른 일면은 당시 그는 모든 이들로부터 '병의 백화점'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지병으로 힘들어 하면서도 어떻게 이러한 활동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 인간의 일생으로는 도저히 다 이를 수 없을 정도의 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득 많은 지병을 그러안은 그였기에 그 당시 병으로 고통하는 그들을 안타까이 여겨 상처받은 그들에게 달려간 것이라고,,,묘하게 가슴으로 납득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애통히 여기시며 병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의 발자취가 투영되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추운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걸으신 발자취를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만나게 되어서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독일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온 김에 견학을 부탁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1914 년 제 1 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군들이 수용된 포로수용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시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또한 당시 소장으로 있었던 분이 후쿠시마현(福島縣) 출신의 마쓰에 유타카고토부키(松江 豊壽)였습니다. 그 분은 강한 신념으로 일본정부와 논쟁하며 독일군들을 포로로서가 아닌 인격체로 정중히 대우했습니다. 패전국의 군인이라도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존경해야 할 분들로서 인권을 존중하여 수용소 내에서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가 포로(捕虜)를 수용하는 수용소가 아닌 부로(俘虜)수용소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독일인들이 만든 악단에 의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 제 9 번 환희의 찬가'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연주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웬지 후쿠시마현인(福島縣人)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보니 **도**쿠시마(徳島)의 도(徳)와 **후**쿠시마(福島)의 후(福)만 바꾸면 **후**쿠시마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년 전에 마쓰다이라 겐(松平 健)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바루도의 낙원'에서 묘사되었다고 듣고는 촬영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가 후쿠시마현(福島縣) 아이즈(會津) 지방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그들에게 경의를 표해 최대한의 자유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후 몇 몇 독일병사는 일본을 좋아하게 되어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일본에 머물러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배경은 드디어 새해 NHK 일요 대하 드라마로 시작되는 '야애의 벚나무(八重の桜)'의 무대가 된 아이즈·보신 전쟁(会津・戊辰戦争)입니다. 이곳은 막부 말기에 쓰루가 성(鶴ヶ城)을 무대로 장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후에 많은 부녀와 소년병이 자결한 비애의 역사 현장입니다. 관군과의 싸움에서 패전의 쓰라린 경험을 하며 온갖 고난을 겪었던 역사의 자녀로서 그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독일병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사실 독일에서 징병되어 싸움터에 보내져서 일본에 포로가 된 그들 대부분이 안경을 만드는 장인이었거나 빵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징병해 군복을 입혀서는 전쟁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우리들과 같은 보통사람이었습니다.

색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지 않으며, 슬픔의 길을 밟아본 사람이야말로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 새로 임명된 부흥 담당 장관에 대하여 후쿠시마현(福島縣)은 '이제부터 후쿠시마현(福島縣) 사람이 되어 부흥시켜 주기 바란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도처에 균열로 벌어진 대지와 이 곳에서 살고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계신 주님! 지진재해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이 피해지역에 오셔서 이중 삼중으로 겹쳐진 어두움의 벽을 한 장씩 한 장씩 말끔히 벗기시고 크리스마스의 빛으로 비추어주셔서 새해의 희망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12 월 25 일 후쿠시마 피해자 아파트에서)

지진 재해 2 년째로 연말 감사 예배와 신년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교회 대신 사용하고 있었던 결혼식장이 연말 연시 휴관으로 인해 지금 공사 중인 날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벽을 다 붙이지 못해 송송 뚫린 벽으로 차가운 살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닐 시트를 달아내리고 새는 비를 피해가며 큰비가 내리고 있는 중에 12월 30일 연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의외로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예배드리는 마치 초대교회의 예배와도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저도 코트를 입은 채였습니다만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도 예배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께 인사차 방문했을 때 '근처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건 좋은 일이지요'라고 말해주셔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마치 갑자기 배가 침몰되어 모두 뿔뿔이 떨어져 어떤 사람은 뗏목에 매달려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표류하고 있고, 정신이 들어보니 어느사이 여행로에 올라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쿠시마(福島)인 고향의 남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집이나 교회를 잃었기 때문에 다시 새교회와 생활의 터전이 될 동지만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마치 거의 완성되어 가던 집이 무너져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계속되겠는지요. 이 여행이 설마 평생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끝은 언제쯤이 되겠는지요?

연말들어 저는 다시 새성도님이 거주할 아파트나 토지 그리고 중고 주택 또한 취직자리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업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몸에 익은것 같습니다.

연착륙을 시도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셨으니 그렇다면 갈 수 있는 곳까지 가 봐야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해봅시다.

자신의 생각을 훌훌 털어버리는 신앙도 하나의 좋은 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진 재해는 과연 새로운 신앙을 빚어내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인지요?

(2013년 지진 재해 2년째인 설날에)